



강진 최제영



곡성 김광휘



광양 김충권



담양 박종영



무안 이기성



보성 안구일



순천 김승호



순천 김종영



신안 박응식

## 함평군 나산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박차

함평군이 나산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기초생활기반 확충, 경관 개선, 주민역량 강화 등을 통해 쾌적한 정주여건을 조성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함평군은 지난 2013년 농림축산식품부 일반농산어촌개발 공모사업에 선정돼 나산면 일대에 총사업비 70억원을 투입해 2018년까지 사업을 추진중이다.

주차장 조성, 도시계획도로 개설, 민회관 리모델링, 문화마을 정비 등 정주여건 기반사업이 한창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나산면 삼축리 4개 마을 등 주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누릴 전망이다.

이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12월 나산면 삼축리에 게이트볼장과 주민쉼터를 개관했다.

**게이트볼장·주민쉼터 개관 등 일정대로 순항**  
**쾌적한 정주여건 조성 주민 삶의 질 향상 기대**



총 16억7천만원을 투입해 연면적 440.82㎡의 전전후 게이트볼장과 지상 1층 연면적 99.37㎡의 주민휴게쉼터를 신축했다. 부대시설로 축구장, 휴게실, 사무실, 진입광장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춰 지역민의 건전한 여가생활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개관식엔 안병호 군수, 이윤행 군의회 의장과 군의원, 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안병호 군수는 "전전후 게이트볼장과 주민쉼터가 지역 주민의 건강도 지키고 지역발전을 위한 소통의 공간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어르신들의 복지공간 확충과 건강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덕근 추진위원장은 "게이트볼은 어르신에게 인기가 많은 운동인데 전전후 게이트볼장 준공으로 이제 비바람 걱정 없이 운동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소회를 밝혔다.

경과보고, 공로패 수여, 기념사 등 기념식이 끝난 후 참석자들은 시설물을 둘러봤다.

함평=김광환 기자

## 영광군, AI 확산 방지 해맞이 행사 취소

영광군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방지를 위해 관내 7개소에서 개최하기로 한 해맞이 행사를 전면 취소했다.

군에서는 인접 지역인 전북 고창군 육용오리농장의 고병원성 AI 발생에 이어 전국 오리 주산지인 전남 영암에서 추가로 발생됨에 따라 AI 유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내년 1월 1일 개최 예정이었던 해맞이 행사를 모두 열지 않기로 했다.

김동성 군수는 "고병원성 AI로 인한 우리 지역 축산농가와 지역

경제 피해 최소화를 위해 해맞이 행사를 부득이하게 취소하게 됐다. 농가 생계를 위협하는 AI 확산 방지를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군에서는 지역 내 AI 위기 경보가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인 만큼 철저 예방활동 점검 강화와 가금류 농가 일제방역 및 예방 집단공무원 운영, 농가 및 운반업자 차단 방역 교육 등 특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영광=서희권 기자



## 장성군, 비정규직 처우 크게 향상된다

기간제 근로자 124명 무기계약직 전환·임금·복지 향상

장성군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처우가 크게 향상된다. 장성군은 비정규직인 기간제 근로자 124명을 내년 1월 1일부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임금도 대폭 올린다고 13일 밝혔다.

현재 장성군 직원은 총 954명이다. 공무원이 61명, 무기계약직 근로자가 139명, 기간제 근로자가 210명이다. 장성군은 기간제 근로자 중에서 상시 지속 업무를 담당하는 124명을 내년 1월 1일부터 정규직인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장성군은 정규직으로 바뀌면 정년으로 인해 업무가 중단되는 고령 근로자 24명 을 포함해 부득이하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없는 근로자를 제외하고 전환 가능한 모든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무기계약직은 기간을 정하지 않고 근로 계약을 맺고 계약을 맺을 때마다 차라야 하는 면접시험과 같은 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기간제보다 안정적인 고용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다.

이번 정규직 전환을 통해 장성군

비정규직은 전체 인원의 9%인 86명으로 대폭 감소하게 된다.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처우도 향상된다. 임금이 대폭 오르고 근무 경력을 비롯한 각종 권리가 호봉에 합산되며 후생복지 혜택이 늘어난다. 장성군은 육아휴직 기간 확대와 각종 수당 지급 방안 등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근로자들은 이번 조치를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특히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바뀌는 근로자들은 고용 안정성이 크게 향상하는 데다 임금도 대폭 올라 희석이 완연하다. 이날 무기계약직과 전환 예정자들을 대상으로 처우 개선 설명회를 가진 유두석 장성군수는 "인건비 등 부담이 상당한 건 사실이지만 사람 중심 인사 운영이라는 원칙에 따라 임금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의 기준인건비 한도액 내에서 최대한 임금을 많이 지급하도록 결정했다"며 "근로자 개인의 발전이 곧 조직의 발전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근로자들이 아름다운 동행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장성=반정모 기자

## 고흥군, 민선 6기 공약이행률 85.4%...“내실 있다” 평가

박병종 고흥군수의 민선 6기 공약 이행을 85.4% 완료되는 등 전반적으로 내실있게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를 받았다.

군은 12월 13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군정평가위원 31명과 성과소장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 6기 공약이행률 군민평가 결과보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평가보고회는 민선 6기 공

약사항의 추진상 문제점 분석 등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지난 11월 실시한 공약사항 평가를 토대로 평가위원들의 의견 및 건의사항 등을 집중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군정평가위원장은 맡은 운용현 군수의 주제로 열린 평가에서는 민선 6기 고흥군 공약이행률에 대한 성과소장의 발표에 이

어 의문사항이나 문제점을 짚어 답변하는 방식으로 평가 진행됐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공약사항 7대 분야 33개 사업에 대해 추진상황을 점검한 결과 완료 26건, 임기내 완료 4건으로 공약이행률 85.4%로 집계됐다.

군정평가위원들은 이날 임기내 완료가 어려운 공약 3건에 대해서는 '차기 군정에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반드시 디딤돌을 놓아야 한다'고 강력히 주문했다.

이에 박병종 고흥군수는 '대서~도양구간 국가지원지방도 승격을 제외한 과확로써 최적화 개발지원과 무인항공복합시험평가센터 건립 및 전문교육기관 유지는 내년도 국비사업에 일부 반영되어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가고 있다'며 임기 마지막까지 군민과의 약속인 공약사항 실현에 모든 열정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승호 전남부부처본부장

## 보성군, ‘농산물 가공창업’ 전문인력 양성

기초반에 이어 이론과 실습 병행한 심화반 교육



보성군은 14일부터 내년 1월 19일까지 농업기술센터와 한국식품정보원 대전교육장에서 '농산물 가공창업 심화반' 교육을 실시한다.

심화반 교육은 기초반 수료자 40여명을 대상으로 성공적인 농산물 가공 창업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진행한다.

보성=안구일 기자

전문 외래강사를 초빙해 식품위생 관련법규, 세무관리 전략 HACCP, 법인운영 방안 이론 교육과 추출, 농축, 음료 배합, 관능검사 등 실습 교육을 총 10회에 걸쳐 체계적으로 실시된다.

군은 지난 10월부터 두달간 가공창업을 희망하는 농업인 40여명을 대상으로 식품 소비 트렌드 변화, 식품 위생과 관리 등 가공창업 기본지식에 대한 '농산물 가공창업 기초반' 교육을 추진했다.

교육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농업기술센터 생활지원계(☎061-850-5722)로 문의하면 된다.

## 신안군, 농촌지도사업 종합평가회 성료

200여 명 참석...추진성과 공유·향후 발전방안 등 모색

섬들의 고향 신안군에서 13일 '농업인이 행복한 신안! 농업이 신안'을 비전으로 솔로건을 걸고 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2017년도 농촌지도사업 종합평가회를 열었다.

이번 평가회는 농업인학습단체, 시범사업농가와 관계공무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농촌지도사업 추진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방안 등을 모색하였다.

금년 한 해동안 추진한 농촌지도 사업을 회관으로 전시하였으며 농업인 대상으로 교육한 교재물을 전시하는 등 평가회에 참석한 농업인들의 시선을 끌었으며, 시범사업 추진에 공이 큰 농업인을 표창하는 등 종합평가회의 위상을 높였다.

주요 성과로 생강 확대재배 기반 조성, 구지뽕 명품화 사업, 기후변화 대응 신소득작목 패션푸드 실증재배, 미니 단호박 조기재배, 수입대체 과수 플러코트 단지조성, 비트재배 등 새소득 작목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큰 호응을 얻었다.

이날 평가회 신안군 관계자는 올 한 해 동안 폭염과 가뭄,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등 영농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한 농업인을 격려했으며, "정성 섬 이미지에 알맞은 고품질의 친환경 재배단지를 확대하고 권역별 기후와 토질에 적합한 고소득 특화품목을 집중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신안=박응식 기자

**광주형 일자리**

광주형일자리란 기업의 경쟁력과 지속발전,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삶의 질 향상을 실현합니다.

광주형일자리란 사회적 합의를 통한 상생과 나눔으로 더불어 사는 광주를 만듭니다.

광주형일자리란 '기업하기 좋고 일하기 좋은 사회'를 만드는 우리의 정책이며 시민과 함께하는 사회혁신운동입니다.

적정임금 (연대임금) 실현

적정 근로시간 실현

노사 책임경영 구현

원·하청관계 개혁

빛그린산단에 '친환경자동차 부품 클러스터 조성' 사업에 연계한 「광주형일자리 선도 모델」 구축

광주광역시 GWANGJU CITY